

《素問·氣府論》에 대한 연구

오이수 · 김보훈 · 노승조 · 천상묵 · 김종호 · 정현종 · 이종순¹ · 정현영*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1: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문헌정보학과

Study on the Gi Boo Lon of Su Wen

Yi Soo Oh, Bo Hun Kim, Seung Jo Roh, Sang Muk Cheon, Jong Ho Kim, Hyun Jong Jeong, Jong Soon Lee¹, Heon Young Jeong*, Kyung Soo Keum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1: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 the acupoints and flowing of channel.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Foot Taiyin channel's energy are seventy three.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Foot Shaoyang channel's energy are sixty two.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Foot Yangming channel's energy are sixty eight.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Hand Taiyang channel's energy are thirty six.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Hand Yangming channel's energy are twenty two.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Hand Shaoyang channel's energy are thirty two.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Du channel's energy are twenty eight.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Ren channel's energy are twenty eight.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Chong channel's energy are twenty two. The acupoints issued from the Foot Shaoyin channel are the Lianquan points of kidney channel on each side under the tongue. The total points above amount of three hundred and sixty five. Urinary Bladder Channel of Foot-Taiyang: The number of acupoints is 67. Gall Bladder Channel of Foot-Shaoyang: The number of acupoints is 44. Stomach Channel of Foot-Yangming: The number of acupoints is 45.

Key words : acupoints, flowing of channel, Gi Boo Lon(氣府論), Su Wen(素問)

서 론

본편에서는 各經脈의 氣가 發하는 俞穴의 숫자와 部位를 論하였다. 모든 經脈의 氣가 發하는 府가 곧 俞穴이므로 篇名을 '氣府論'이라고 하였다.

본편은 《全元起本》에는 제2권에 編次되었고, 《太素》에는 권11 「氣府篇」에 編次되어 있고, 《類經》에는 권7 「經絡類9」 氣府三百六十五에 編次되어 있다.

본편의 主要內容은 手·足三陽의 六腑經脈 및 任·督·衝 3脈의 氣가 發하는 俞穴이다. 본편을 7장으로 나누었으니 제1장은 足太陽脈의 穴을, 제2장은 足少陽脈의 穴을, 제3장은 足陽明脈의 穴을, 제4장은 手太陽脈의 穴을, 제5장은 手陽明脈의 穴을, 제6장은 手少陽脈의 穴을, 제7장은 督脈 任脈 衝脈의 穴을 論하고 있다.

연구방법

本篇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內容別로 章·節로 나누고 原文에 懸吐와 校勘, 字句解, 較註, 直譯 및 意譯을 하고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王冰의 《珍微宋版印本》¹⁾에 準하였고, 林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²⁾을 中心으로 張介賓의 《類經》³⁾, 程士德의 《素問註釋匯粹》⁴⁾를 參考하여 四章六節로 나누었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校勘은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⁵⁾, 林億의 《新校正》⁶⁾, 《郭霽春》의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⁷⁾, 河北醫學院의 《黃帝內經素問校釋》⁸⁾ 등 표1을 參考하였다.

- 1) 王冰; 黃帝內經素問, 珍微宋版印, 中華書局.
- 2) 林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 3)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 4)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 6)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 7)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4/08/13 · 수정 : 2004/09/13 · 채택 : 2004/10/05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표2의 10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 別로 모았으며 모든 註 가운데서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參考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句讀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直譯과 大同小異하므로 생략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較註에 [], 字句解에 (), 校勘에), 引用文獻에 《 》로 表示 하였으며, 論文이나 篇名에는 < >, 脚註는 1), 2), 3)···의 一聯番號로 表示하였다.

자. 結論은 本 論文 末尾에 배열치 않고 연구내용 중간에 考察로 結論을 지었다.

표1. 校勘에 引用한 書目

番號	書名	略稱	備考
1	黃帝內經太素	太素	
2	說文解字	說文	
3	黃帝二部鍼灸甲乙經	甲乙經	
4	全生指迷方		
5	聖濟總錄		
6	諸病源候論	病源	
7	素問論		
8	明萬曆壬子閩建秀木坊刻本	滑抄本	語譯參照
9	明總谷書林園日校刻本	國本	"
10	元刻殘本	元殘	"
11	明嘉靖間金谿吳傑校理本	吳本	"
12	明萬曆四十二年朝鮮內醫院刻本	朝本	"
13	滄芬樓影印明正統道藏書	藏本	"
14	明成化十年熊氏種德堂刻本	熊本	"
15	素問注釋選粹	選粹	
16	素問札記		匯粹參照

표2. 研究資料 書目

番號	著者	年代	書名	備考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蒨	明	黃帝內經注證發微	馬
3	吳崑	明	黃帝內經素問吳註	吳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6	高士宗	清	素問直解	高
7	山東省中醫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8	王琦等	1981	黃帝內經今釋	今釋
9	程士德	1982	素問注釋選粹	匯粹
10	郭誠春	1981	黃帝內經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연구내용

1. 제 1장 足太陽脈의 穴

【原文】

足太陽脈氣所發者是 七十八穴⁹⁾이니 兩眉頭가 各一이오 人髮至頂²⁾三寸半에 傍五相去三寸³⁾이며 其浮氣在皮中者는 凡五行五니 五五二十五오 項中大筋兩傍이 各一이오 風府兩傍이 各一이오 俠背以下⁴⁾로 至尻尾히 二十一節이니 十五間에 各一이오 五

藏之俞가 各五오 六府之俞가 各六⁵⁾오 委中以下로 至足小指傍히 各六俞라

【校勘】

(1) 七十八穴: 《太素》에는 ‘七十三穴’로 되어 있다.

(2) 人髮至頂: 《直解》는 ‘人髮至頂’으로 하였다.

(3) 相去三寸: 《太素》에는 ‘相去二寸’으로 되어 있다.

(4) 俠背以下: 《太素》에는 ‘俠背以下’로 되어 있다.

(5) 五藏之俞各五 六府之俞各六: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較註】

(1) 足太陽脈氣所發者七十八穴

王·馬·吳·景岳 등은 “本經의 下文을 살펴보면 足太陽經脈은 모두 93穴이다. 督脈과 少陽經과 관련되고 浮氣가 本經과 상통하여 중복된 것이 15穴이니, 여기에서는 다만 78穴이라고 한 것이다. 近世의 經絡에는 足太陽經은 左右에 모두 126穴로 전해 오니, 93穴이라고 한 것도 요즘과는 차이가 있다. 本篇에 기재된 것은 특별히 經脈의 기운이 발동하는 곳과 別經과 會合하는 것 을 말하였으므로 氣府라고 한 것이다.”⁹⁾고 하였다.

- 考察 : ‘七十八穴’에 대하여 王은 “氣가 發하는 穴과 會合하는 穴이 15穴인데 本經의 78穴과 합하면 93穴이 된다. 여기에서 78穴이라 한 것은 단지 正經 중에서 氣가 會發하는 穴만 말한 것 이다.”고 하였고, 馬는 “本經과 別經 중에서 氣가 發하는 穴은 78 이니 꼭 本經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吳는 “아래 문장 을 살펴보면 총 91穴이니 13穴이 더 많다. 이것은 지금과 다르니 지금은 左右 합하여 126穴이다.”고 하였고, 景岳은 “本經의 下文 을 살펴보면 足太陽經脈은 모두 93穴이다. 督脈과 少陽經과 관련 되고 浮氣가 本經과 上통하여 중복된 것이 15穴이니, 여기에서는 다만 78穴이라고 한 것이다.”고 하여 의견이 다르다. 크게 나누 면 王·馬·吳 등은 足太陽勝脈經의 氣府는 모든 穴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足太陽勝脈經의 氣가 發하여 相通되는 78穴이라 는 주장이고, 吳는 足太陽勝脈經의 모든 126穴이 氣府라는 주장 이다. 본편은 經穴 가운데 특히 氣가 發하는 곳과 會通하는 穴에 대해 언급한 것이므로 吳의 주장은 다르기 어렵다.

(2) 人髮至頂三寸半 傍五 相去三寸 其浮氣在皮中者凡五行 行五 五五二十五

王·吳·景岳 등은 “行은 音이 항이다. 浮氣는 陽氣가 巔頂 部까지 부상하는 것이고, ‘五行行五’는 가운데 열은 顛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 5穴이니 督脈이고, 足太陽之脈이 督脈과 巔頂部에 서 交會하여 氣운이 서로 相通되므로 함께 말한 것이다. 다음 두 열은 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 5穴로서 좌우에 모두 10穴이고, 다음 두 열은 臨泣 目窗 正營 承靈 雷公 5穴로서 좌우에 모두 10穴이니, 총 25穴이 된다.”¹⁰⁾고 하였다.

8)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王: 兼氣浮薄相通者言之 常言九十三穴이요 非七十八穴也니 正經脈會發者七十八穴과 浮薄相通者 一十五穴이 則其數也라 ○馬: 此는 言太陽勝脈經脈氣所發之穴이라 凡本經與別經과 有關於脈氣所發者 七十八穴이니 不必盡拘於本經者也라 ○吳: 下文考得九十一穴이니 多一十三穴이라 此與近世不同하니 近世左右共一百二十六穴이라 ○景岳: 詳考本經下文컨대 共得九十三穴이라 內除督脈少陽二經과 其浮氣相通於本經而重見者가 凡十五穴이니 則本經止七十八穴이라 近世經絡相傳에 足太陽左右共一百二十六穴이니 卽下文各經之數도 亦多與今時者로 不同이라 蓋本篇所載者는 特舉諸經脈氣所發과 及別經所會而言 故曰氣府라

10) ○王: 謂大杼風門各二穴也니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浮氣는

(3) 項中大筋兩傍各一 風府兩傍各一

王·景岳 등은 “天柱 2穴이다. 風府는 督脈穴이니 兩傍에 足少陽經의 風池 2穴이 있다.”¹¹⁾고 하였다.

(4) 俠脊以下至尻尾二十一節十五間各一

景岳은 “脊骨에 21節이 있으니 大椎穴을 제 1節로 하여 尻尾까지를 말한 것이다. 項骨 3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間은 骨節의 사이를 말하니, 15間에 각각 1穴이 있다. 《甲乙經》등을 살펴보면 14穴밖에 없으니, 大杼·附分·魄戶·神堂·譙諱·崑崙·魂門·陽綱·意舍·胃倉·肓門·志室·胞育·秩邊이다. 근세에 膏肓穴을 합한다면 15穴이 되지만 晉代이전에는 이穴位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원래의 수는 좌우를 합하여 28穴이다.”¹²⁾고 하였다.

(5) 五藏之俞各五 六府之俞各六

王·景岳 등은 “五藏俞는 肺俞 心俞 肝俞 脾俞 腎俞이고, 六府俞는 膽俞 胃俞 三焦俞 大腸俞 小腸俞 膀胱俞이니, 藏府의 俞穴을 합하면 좌우에 총 22穴이 된다.”¹³⁾고 하였다.

(6) 委中以下至足小指傍各六俞

王·景岳은 “委中·崑崙·京骨·束骨·通谷·至陰을 말하

謂氣浮而通之하여 可以去熱者也라 五行은 謂頭上自髮際中同身寸之二寸後 至頂之後者也라 二十五者는 其中行則顯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 (計)五니 督脈氣也요 次俠傍兩行 則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이 各五니 本經氣也요 又次傍兩行 則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이 各五니 足少陽氣也라 兩傍四行各五 則二十穴이요 中行五則二十五也니 其刺灸分壯은 與水熱穴同法이라 ●吳: 行은 音柄이라 浮氣는 陽氣浮于巔頂之上者也요 五行 行五者는 中行則顯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五穴이니 此本經氣이요 足太陽之脈이 與督脈으로 交于巔하여 氣相貫也 故로 并言之라 次兩行 則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五穴이니 左右合成十穴이요 又次兩行 則臨泣 目窓 正營 承靈 雷公五穴이니 左右合成十穴이요 共二十五穴也라 ○景岳: 項은 當作頂이라 自肩上入髮하면 曲差穴也요 自曲差上行至頂中通天穴 則三寸半也요 並通天而居中者는 督脈之百會也요 百會爲太陽督脈之會 故로 此以爲言이라 百會居中 而前後共五穴하고 左右凡五行 故로 曰傍五니 自百會前至顯會하고 後至強間하며 左右至少陽經穴이니 相去各三寸이요 共五二十五穴이라 浮氣者는 言脈氣之浮於頂也니 共五行이요 行五穴이라 五行之中而太陽椎二라 其中行者는 督脈也니 顯會·前頂·百會·後頂·強間 共五穴이요 次兩行者는 本經也니 五處·承光·通天·絡却·玉枕이 左右各五穴이요 又次兩行者는 少陽經也니 臨泣·目窓·正營·承靈·腦空이 左右各五穴이니 共二十五穴也라

- 11) ○王: 謂天柱二穴也니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謂風池二穴也니 刺灸分壯與氣穴同法이라 ●景岳: 天柱二穴也라 風府는 督脈穴이니 兩傍各一은 足少陽風池二穴也라
- 12) ●景岳: 脊骨二十一節이니 自大椎穴爲第一節로 以下至尻尾而言이요 除項骨三節不在內也라 間은 骨節之間也니 十五間에 各一이라 今考之 甲乙等經컨대 椎十四穴이니 乃大杼·附分·魄戶·神堂·譙諱·崑崙·魂門·陽綱·意舍·胃倉·肓門·志室·胞育·秩邊也라 近世에 復有膏肓一穴이던 亦合十五穴이니 然이나 此穴自晉以前所未言 而原數則左右共二十八穴也라
- 13) ○王: 肺俞는 在第三椎下兩傍俠脊하니 相去各同身寸之一寸半하니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七呼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心俞는 在第五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肺俞法하고 留七呼라 肝俞는 在第九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心(肺)俞法하고 留六呼라 脾俞는 在第十一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肝俞法하고 留七呼라 腎俞는 在第十四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脾(肺)俞法하고 留七呼라 膽俞는 在第十椎下兩傍하니 相去同身寸之一寸半하니 如肺俞法하고 正坐取之하여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留七呼(灸三壯)라 胃倉는 在第十二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脾(肺)俞法하고 留七呼라 三焦俞는 在第十三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膽俞法이라 大腸俞는 在第十六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肺俞法하고 留六呼라 小腸俞는 在第十八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心(肺)俞法하고 留六呼라 膀胱俞는 在第十九椎下兩傍하니 相去及刺如腎(肺)俞法하고 留六呼라 五藏六府之俞에 若灸者는 並可灸三壯이라 ●景岳: 五藏俞는 謂肺俞心俞肝俞脾俞腎俞也요 六府俞는 謂膽俞胃倉三焦俞大腸俞小腸俞膀胱俞니 合藏府之俞면 左右共二十二穴이라

니, 좌우에 모두 12穴이다.”¹⁴⁾고 하였다.

【直譯】

足太陽脈氣가 發하는 곳은 78개 穴입니다. 양쪽 眉頭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髮際에서 정수리까지의 거리가 3寸半이며 옆에 다섯이 있고 서로 3寸 떨어져 있으며, 그 浮氣가 皮膚 가운데에 있는 것은 모두 다섯 줄이며 줄마다 5개 穴이 있어서 5×5=25개 穴이 있습니다. 項 가운데의 大筋 양옆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風府穴 양옆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背部에서 俠하며 尻尾까지 21개 關節이 있으며 15개 사이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五臟의 俞穴은 각각 5개, 六腑의 俞穴은 각각 6개 있고, 委中穴에서부터 새끼 발가락 옆에까지 각각 6개 俞穴이 있습니다

2. 제 2장 足少陽脈의 穴

【原文】

足少陽脈氣所發者는 六十二穴¹⁾이니 兩角上이 各二요 直目上髮際內가 各五²⁾요 耳前角上이 各一이요 耳前角下가 各一이요 銳髮下가 各一³⁾이요 客主人이 各一이요 耳後陷中이 各一⁴⁾이요 下關이 各一이요 耳下牙車之後가 各一이요 缺盆이 各一이요 掖下가 三寸이요 脇下至肘八間이 各一이요 髀樞中傍이 各一이요 膝以下至足小指次指가 各六俞라

【校勘】

- (1) 六十二穴: 《太素》에는 ‘五十二穴’로 되어 있다.
- (2) 直目上髮際內各五: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 (3) 耳前角下各一 銳髮下各一: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 (4) 耳後陷中各一: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較註】

(7) 足少陽脈氣所發者六十二穴

馬·景岳 등은 “이는 足少陽脈의 기운이 발동하는 곳과 別經과 本經과 연관된 곳에 脈氣가 발동하는 것이 모두 62穴임을 말한 것이다.”¹⁵⁾고 하였다.

(8) 兩角上各二

王·吳·景岳 등은 “角은 額各을 말한다. 이 위에 각각 2穴은 天衝과 曲鬢을 말한다.”¹⁶⁾고 하였다.

(9) 直目上髮際內各五

王·景岳·張 등은 “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이니 좌우에 각각 5穴이고 총 10穴이다. 太陽之氣는 頭項으로 상승하고 少陽之氣는 頭頰으로 상승하므로 이 五脈이 太陽之氣를 따를 때에는 太陽之氣가 발동하는 곳이 되고 少陽之脈을 따를 때에는 少陽之脈氣가 발동하는 곳이 된다.”¹⁷⁾고 하였다.

- 14) ○王: 謂委中 崑崙 京骨 束骨 通谷 至陰 六穴也니 左右言之 則十二俞也라 其所在刺灸는 如氣穴法이라 經言脈氣所發者 七十八穴이라하니 今此所有兼亡者 九十三穴이니 由此則大數差錯는 傳瀆有誤也라 ●景岳: 謂委中·崑崙·京骨·束骨·通谷·至陰也니 左右共十二穴이라
- 15) ○馬: 此는 言足少陽經에 脈氣所發之穴名이니 凡本經與別經有關於 脈氣所發者는 計六十二穴이라 不必盡拘於此本經也라 ●景岳: 此는 足少陽脈氣所發과 及別經有關於本經脈氣者가 共六十二穴이라
- 16) ○王: 謂天衝 曲鬢이니 左右各一也라 天衝은 在耳上如前에 同身寸之三分이니 足太陽少陽二脈之會요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曲鬢은 在耳上入髮際 曲鬢陷者中에 鼓領有空이니 足太陽少陽二脈之會요 刺灸分壯은 如天衝法이라 ●吳: 角은 謂額各이라 各二는 天衝 曲鬢也라 ○景岳: 角은 耳角也라 角上各二는 天衝 曲鬢也니 共四穴이라

(10) 耳前角上各一 耳前角下各一 銳髮下各一 客主人各一 耳後陷中各一 下關各一 耳下牙車之後各一 缺盆各一

王·景岳 등은 “(耳前角上各一)耳前角은 曲角이다. 頤顛 2穴을 말한다. (耳前角下各一)懸釐 2穴을 말한다. (銳髮下各一)手少陽經의 和髎穴이니 手足少陽이 交會하는 穴이다. (客主人各一)上關 2穴을 말한다. (耳後陷中各一)手少陽經의 翳風穴이니 手足少陽이 交會하는 穴이다. (下關各一)足陽明經이니 足少陽陽明이 交會하는 穴이다. (耳下牙車之後各一)足陽明經의 頰車穴이니 經別篇에 ‘足少陽이 頤頤中으로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交會한다. (缺盆各一)足陽明經穴이니 手足少陽이 모두 여기로 나온다.”¹⁷⁾고 하였고, 高는 “(耳下牙車之後各一)耳下の 頰車穴 위의 天容穴이다.”¹⁹⁾고 하였다.

- 考察 : ‘耳下牙車之後各一’에 대하여 王 등은 ‘頰車穴’이라고 하였고, 高는 ‘天容穴’이라고 하여 의견이 다르다. 頰車穴의 異名 중에 ‘牙車’가 있는 것으로 보면 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된다.

(11) 掖下三寸 脇下至臑 八間各一

王·景岳·張 등은 “掖下三寸은 淵腋이고, 淵腋에서부터 脇部로 내려가 肘部까지 여덟 개의 틈에 각각 한 穴이 있는 것은 輒筋·天池·日月·章門·帶脈·五樞·維道·居髎를 말한다, 淵腋에서부터 모두 9穴이고 좌우를 합하여 18穴이다. 안으로 天池는 手厥陰에 속하고 章門은 足厥陰에 속하니, 모두 足少陽과 交會하는 穴이다.”²⁰⁾고 하였다.

(12) 髀樞中傍各一

王·吳·景岳·張 등은 “中傍은 가운데에서 약간 옆이라는 의미이니, 環跳穴을 말한다.”²¹⁾고 하였다.

(13) 膝以下至足小指次指各六俞

王·吳·景岳·張 등은 “小指次指는 새끼발가락의 옆 발가락을 말한다. 六俞는 陽陵泉 陽輔 丘墟 臨泣 俠谿 竅陰 6穴이니 좌우를 합하여 12穴이다.”²²⁾고 하였다.

【直譯】

足少陽脈氣가 發하는 곳은 62개 穴입니다. 양쪽 角 위에 각각 2개 穴이 있고, 눈에서 곧바로 위로 髮際 안에 각각 5개 穴이 있고, 귀의 前角 위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귀의 前角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銳髮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客主人 각각 1개 穴이 있고, 귀 뒤의 우묵한 곳 가운데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下關 각각 1개 穴이 있고, 귀 아래 牙車의 뒤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缺盆 각각 1개 穴이 있고, 겨드랑이의 3寸 아래에서부터 脇部 아래로 肘까지의 여덟間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髀樞 가운데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무릎에서부터 넷째 발가락까지 각각 6개 俞 穴이 있습니다.

3. 제3장 足陽明脈의 穴

【原文】

足陽明脈氣所發者는 六十八穴¹⁾이니 額顛髮際傍이 各三이요 面軌骨空이 各一이요 大迎之骨空이 各一이요 人迎이 各一이요 缺盆外骨空이 各一이요 膺中骨間이 各一이요 俠鳩尾之外 當乳下

寸之二寸五分하고 上直兩乳니 足太陰少陽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七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章門은 脾募也라 在季肋端이니 足厥陰少陽二脈之會라 側臥하야 屈上足 伸下足하고 舉臂取之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留六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帶脈은 在季肋下同身寸之一寸八分이니 足少陽帶脈二經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五樞는 在帶脈下 同身寸之三寸이니 足少陽帶脈二經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一寸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維道는 在章門下 同身寸之五寸三分이니 足少陽帶脈二經之會라 刺灸分壯은 如章門法이라 居髎는 在章門下 同身寸之四寸三分에 髀骨上 陷者中이니 陽蹻足少陽二脈之會라 刺灸分壯은 如維道法이라 所以謂之八間者는 自掖下三寸으로 至季肋이 凡八肋骨일새라 景岳: 掖下三寸은 淵腋也요 自淵腋으로 下脇至肘하 八間各一者는 謂輒筋·天池·日月·章門·帶脈·五樞·維道·居髎니 連淵腋하야 共九穴이요 左右合十八穴이라 內天池는 屬手厥陰이요 章門은 屬足厥陰이니 皆足少陽之會라 張: 掖下는 謂淵腋 輒筋 天池요 脇下至肘는 謂日月 章門 帶脈 五樞 維道 居髎니 共九穴이라 曰八間者는 自掖下三寸으로 至季肋間이 凡八肋骨間也라 淵腋은 在掖下三寸宛宛中이니 舉臂得之요 輒筋은 在期門下五分陷中 第三肋者요 天池는 屬手厥陰心包絡經하고 在掖下三寸 乳後一寸이요 日月은 在期門下五分이요 章門은 係足厥陰肝經穴하고 在季肋肋端 齊上二寸 兩旁開九寸에 側臥肘尖盡處가 是穴이요 帶脈은 在季肋下一寸八分陷中이요 五樞는 在帶脈下三寸이요 維道는 在章門下五寸三分이요 居髎는 在章門下八寸三分이라

21) 〇主: 謂環跳二穴也라 刺灸分壯은 氣穴同法이라 在髀樞中也니 傍各一者는 謂左右各一穴也요 非謂環跳在髀樞中傍也라 〇吳: 中傍者는 中而少傍이니 環跳二穴이 是也라 〇景岳: 環跳穴也라 〇張: 謂環跳二穴이니 側臥하야 伸下足 屈上足하야 以右手按穴하고 左搖搯取之爲得이라

22) 〇主: 謂陽陵泉 陽輔 丘墟 臨泣 俠谿 竅陰 六穴也니 左右言之 則十二俞也라 其所在와 刺灸分壯은 並與氣穴同法이라 〇吳: 小指次指는 謂小指之側次指也라 六俞는 謂陽陵泉 陽輔 丘墟 臨泣 俠谿 竅陰六穴이니 左右合成十二穴也라 〇景岳: 謂陽陵泉 陽輔 丘墟 臨泣 俠谿 竅陰이니 左右共十二穴也라 〇張: 謂陽陵泉 陽輔 邱墟 臨泣 俠谿 竅陰 六穴이라 陽陵泉은 在膝下一寸 脛外廉陷中端이니 半取之요 陽輔는 在足外踝上四寸 輔骨前三分이요 丘墟는 在足外踝下陷中이요 臨泣는 在足小指次指 本節後間陷中이요 俠谿는 在足小指次指岐骨間 本節前陷中이요 竅陰은 在足小指次指之端이라

17) 〇王: 謂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 左右是也라 臨泣은 在睛目上入髮際 同身寸之五分이니 足太陰少陽陽維三脈之會요 留七呼라 目窓은 在臨泣後 同身寸之一寸이요 正營은 在目窓後 同身寸之一寸이요 承靈은 在正營後 同身寸之一寸半이요 腦空은 在承靈後 同身寸之一寸半이라 〇景岳: 謂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 左右共五 共十穴이라 按컨대 太陽之氣는 上升於頭頂하고 少陽之氣는 上升於頭頰 故로 此五脈이 從太陽之氣 則爲太陽之氣所發이요 從少陽之脈 則爲少陽之脈氣所發也라

18) 〇王: 謂頰車二穴也라 在曲角上 顛顛之上廉이니 手足少陽足陽明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七分하고 留七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요 刺深하면 令人耳無所聞이라 (耳前角下各一) 謂懸釐二穴也라 在曲角上 顛顛之下廉이니 手足少陽陽明四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七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銳髮下各一) 謂和髎二穴也라 在耳前 銳髮下 橫動脈이니 手足少陽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客主人各一) 客主人은 穴名也라 在耳前上廉 起付開口有骨이니 手足少陽足陽明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七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耳後陷中各一) 謂翳風二穴也라 在耳後陷者中에 按之引耳中이니 手足少陽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下關各一) 下關은 穴名也라 所在刺灸氣穴同法이라 (耳下牙車之後各一) 謂頰車二穴也라 刺灸分壯 氣穴同法이라 (缺盆各一) 缺盆은 穴名也라 在肩上橫骨 陷者中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二分하고 留七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요 太深하면 令人逆息이라 〇景岳: (耳前角上各一) 耳前角은 曲角也라 角上各一은 頤顛二穴也라 (耳前角下各一) 懸釐二穴也라 (銳髮下各一) 手少陽和髎也니 手足少陽之會라 (客主人各一) 上關二穴也라 (耳後陷中各一) 手少陽翳風二穴也니 手足少陽之會라 (下關各一) 足陽明穴也니 足少陽陽明之會라 (耳下牙車之後各一) 足陽明頰車二穴也니 經別篇에 足少陽出頤頤中 故로 會於此라 (缺盆各一) 足陽明經穴이니 手足少陽이 俱出於此라

19) 〇高: 耳下頰車之後니 天容二穴이라

20) 〇王: 掖下三寸은 同身寸也라 掖下는 謂淵腋 輒筋 天池요 脇下至肘는 則日月 章門 帶脈 五樞 維道 居髎 九穴也니 左右共十八穴也라 淵腋은 在掖下同身寸之三寸이니 足少陽脈氣所發이라 舉臂得之하고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요 禁不可灸라 輒筋은 在掖下同身寸之三寸에 復前行同身寸之一寸揉脇이니 足少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天池는 在乳後同身寸之二寸 掖下三寸揉脇에 直按腋助間이니 手心主足少陽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日月은 膺募也라 在第三肋端橫心蔽骨傍에 各同身

三寸에 俠胃脘이 各五오 俠齊廣三寸¹⁾이 各三이오 下齊二寸³⁾俠之 各三이오 氣衝動脈이 各一이오 伏菟上이 各一이오 三里以下로 至足中指히 各八俞니 分之所在穴空이라

【校勘】

- (1) 六十八穴: 《太素》에는 '六十二穴'로 되어 있다.
- (2) 俠齊廣三寸: 《直解》에는 '俠齊廣二寸'으로 되어 있다.
- (3) 下齊二寸: 《直解》에는 '下齊三寸'으로 되어 있다.

【較註】

(14) 額顛髮際傍各三 面肌骨空各一 大迎之骨空各一 人迎各一 缺盆外骨空各一 膺中骨間各一

王·景岳·張 등은 “(額顛髮際傍各三)謂懸顛 陽白 頭維니 좌우에 총 6穴이다. 懸顛와 陽白은 足少陽經의 穴이다. (面肌骨空各一)四白穴이다. (大迎之骨空各一)大迎穴이다. (人迎各一)人迎脈이 곧 이 穴이니 좌우에 2穴이 있다. (缺盆外骨空各一)手少陽經의 天謬穴이다. (膺中骨間各一)氣戶 庫房 屋翳 膺窓 乳中 乳根이니 좌우에 총 12穴이다.”²³⁾고 하였고, 高는 “額顛로부터 髮際 부위로 들어가면서 本神 頭維 懸顛穴이 양측으로 있으니, 모두 6穴이다.”²⁴⁾고 하였다.

- 考察: '額顛髮際傍各三'에 대하여 王 등은 '懸顛 陽白 頭維'라고 하였고, 高는 '本神 頭維 懸顛'라고 하였으니 '陽白'과 '本神'

만 다르다. 原文이 이마의 髮際 부근이라고 하였으니 高의 주장을 따른다.

(15) 俠鳩尾之外 當乳下三寸 俠胃脘各五

王·景岳·張 등은 “不容穴 承滿穴 梁門穴 關門穴 太乙穴을 말하는 것이니 左右합하여 10穴이다.”²⁵⁾고 하였다.

(16) 俠齊廣三寸各三 下齊二寸俠之各三 氣衝動脈各一 伏菟上各一

王·景岳·張 등은 “滑肉門 天樞 外陵이니 좌우에 총 6穴이다. (下齊二寸俠之各三)大巨 水道 歸來니 좌우에 총 6穴이다. (氣衝動脈各一)氣衝니 좌우에 2穴이다. (伏菟上各一)髀關穴이다.”²⁶⁾고 하였다.

(17) 三里以下至足中指各八俞 分之所在穴空

王·景岳·張 등은 “三里 上廉 下廉 解谿 衝陽 陷谷 內庭 厲兌 8穴이니 좌우로 총 16穴이다. 上廉은 足陽明과 大腸이 會合하는 穴이고 下廉은 足陽明과 小腸이 會合하는 穴이니, 자침의 깊이와 뜸의 횟수는 氣穴法과 같다. '分之所在穴空'는 足陽明脈이 三里穴에서 나뉘어져 하행하여 直者는 정강이를 따라 발등을 지나 足中趾에 이르니 그 끝이 곧 厲兌穴이고, 支者는 직행하는 經脈과 함께 내려와 발등에 이르러 中趾와 다음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므로 그렇게 달한 것이다. '之'는 가는 것이니, 나뉘어져 각 穴의 위치로 가는 것을 말한다.”²⁷⁾고 하였다.

23) ○主: 謂懸顛 陽白 頭維니 左右共六穴也라 正面髮際로 橫行數之면 懸顛는 在曲角上顛額之中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三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陽白은 在眉上同身寸之一寸直瞳子니 足陽明陰維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灸三壯이라 頭維는 在額角髮際 俠本神兩傍에 各同身寸之一寸五分이니 足少陽陽明二脈之交會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禁不可灸라 (面肌骨空各一)謂四白穴也니 在目下同身寸之一寸에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不可灸라 (大迎之骨空各一)大迎은 穴名也라 在曲頰前 同身寸之一寸三分 骨陷者中에 動脈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三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人迎各一)人迎은 穴名也라 在頸結喉傍 大脈動應이니 手少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過深殺人하니 禁不可灸라 (缺盆外骨空各一)謂天謬二穴也라 在缺盆中上伏骨之淵 陷者中이니 手足少陽陽維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膺中骨間各一)謂膺窓等六穴也라 膺窓은 在胸兩傍 俠中行하야 各相去同身寸之四寸에 巨骨下로 同身寸之四寸八分 陷者中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仰而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此穴之上에 又有氣戶 庫房 屋翳하고 下又有乳中乳根하니 氣戶는 在巨骨下 下直膺窓에 去膺窓上同身寸之四寸八分이요 庫房은 在氣戶下 同身寸之一寸六分이요 屋翳는 在氣戶下 同身寸之三寸二分이요 下即膺窓也라 膺窓之下는 即乳中也요 乳中穴下에 同身寸之一寸六分 陷者中 則乳根穴也니 是足陽明脈氣所發이요 仰而取之라 乳中은 禁不可灸刺니 灸刺之不幸하야 生蝕疔이면 疔中有滿汁膿血者는 可治나 疔中有瘻肉若蝕疔者는 死라 餘五穴은 剌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額顛髮際傍各三)謂懸顛 陽白 頭維也니 左右共六穴이라 內懸顛 陽白은 俱足少陽穴이라 (面肌骨空各一)四白二穴也라 (大迎之骨空各一)即大迎二穴也라 (人迎各一)人迎脈이 卽此也니 左右二穴이라 (缺盆外骨空各一)手少陽天謬二穴也라 (膺中骨間各一)謂氣戶 庫房 屋翳 膺窓 乳中 乳根이니 左右共十二穴也라 ○張: 謂懸顛 陽白 頭維니 左右各三하야 共六穴也라 懸顛 陽白은 係足少陽經이요 頭維는 係本經穴라 懸顛는 在曲角上이요 陽白은 在眉上一寸 直瞳子요 頭維는 在頭角入髮際 本神旁一寸半 神庭旁四寸半이라 (面肌骨空各一)謂四白穴이니 在目下一寸 直對瞳子下라 (大迎之骨空各一)大迎穴이니 在曲頰前一寸三分 骨陷中 動脈이라 (人迎各一)人迎穴이니 在結喉兩旁一寸半 大動脈應手라 (缺盆外骨空各一)謂天謬穴이니 屬手太陽三焦經이요 在肩缺盆上骨際陷中 缺盆上起肉이 是穴이라 (膺中骨間各一)謂膺窓 氣戶 庫房 屋翳 乳中 乳根六穴이니 日各一者는 言膺中之骨間이 正諸穴之所在라 氣戶는 在骨下 兪府兩旁各二寸陷中이요 庫房은 在氣戶下一寸六分陷中이요 屋翳는 在巨骨下一寸六分陷中이요 膺窓은 在屋翳下一寸六分陷中이요 乳中은 當乳中是穴이요 乳根은 在乳中下一寸六分陷中이라

24) ●高: 從額顛入髮際하야 有本神 頭維 懸顛 兩傍各三하니 凡六穴이라

25) ○主: 謂不容 承滿 梁門 關門 太一 五穴也니 左右共一寸也라 俠腹中行 兩傍하야 相去各同身寸之四寸이라 不容은 在第四肋端下요 至太一히 各上下相去同身寸之一寸이니 是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景岳: 謂不容 承滿 梁門 關門 太乙이니 左右共十穴也라 ○張: 謂本經不容 承滿 梁門 關門 太乙五穴이니 各去中行三寸이라 不容은 在巨關旁第四肋端下요 至下承滿梁門關門太乙히 上下相去各一寸이라

26) ○主: 廣은 謂去齊橫廣也니 廣三寸者는 各如太一乙之遠近也라 各三者는 謂滑肉門 天樞 外陵也라 滑肉門은 在太一下 同身寸之一寸이요 天樞는 在滑肉門下 同身寸之一寸에 正當於齊요 外陵은 在天樞下 同身寸之一寸이니 是足陽明脈氣所發이라 天樞는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留三呼하며 滑肉門 外陵은 各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是可灸五壯이라 (下齊二寸俠之各三)下齊二寸 則外陵下 同身寸之一寸 大巨也요 各三者는 謂大巨 水道 歸來也라 大巨는 在外陵下 同身寸之一寸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水道는 在大巨下 同身寸之三寸이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二寸半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歸來는 在水道下 同身寸之二寸이요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也라 (氣衝動脈各一)氣衝는 穴名也라 在毛際兩旁 歸來下鼠臑上 同身寸之一寸에 脈動應手니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三呼하며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伏菟上各一)謂髀關二穴也니 在膝上伏菟後 交分中이요 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謂滑肉門 天樞 外陵이니 左右共六穴也라 (下齊二寸俠之各三)謂大巨 水道 歸來니 左右共六穴也라 (氣衝動脈各一)氣衝也니 左右二穴이라 (伏菟上各一)髀關二穴也라 ○張: 謂滑肉門 天樞 外陵 三穴이니 滑肉門은 在太乙下二寸 去中行俠齊各三寸이요 天樞는 在齊旁各關二寸陷中이요 外陵은 在天樞下一寸 去中行各二寸이라 (下齊二寸俠之各三)謂大巨 水道 歸來三穴이라 大巨는 在外陵下一寸이요 水道는 在大巨下二寸이요 歸來는 在水道下二寸이니 各開齊下中行二寸이라 (氣衝動脈各一)氣衝穴이니 在歸來下鼠臑上一寸에 動脈應手라 (伏菟上各一)謂髀關二穴이니 在膝下伏菟後交分中二寸이라

27) ●主: 謂三里 上廉 下廉 解谿 衝陽 陷谷 內庭 厲兌 八穴也니 左右言之 則十六俞也라 上廉은 足陽明與大腸會이요 下廉은 足陽明與小腸會也니 其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所謂分之所在穴空者는 足陽明脈이 自三里穴分而下行하야 其直者는 循胫過跗하야 入中指하야 出其端이 則厲兌也요 其支者는 與直俱行하야 至足跗上하야 入中指次間 故로 云分之所在穴空也라 之는 往也니 言分而各行往指間穴空處也라 ○景岳: 謂三里 上廉 下廉 解谿 衝陽 陷谷 內庭 厲兌니 左右共十六穴이라 足陽明支者는 一出下廉三寸而別下入中指하고 一自跗上別入大指端 故로 曰

【直譯】

足陽明脈氣가 發하는 곳은 68개 穴입니다. 이마와 髮際 옆에 각각 3개 穴이 있고, 광대뼈 구멍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骨空에 大迎 각각 1개 穴이 있고, 人迎 각각 1개 穴이 있고, 缺盆 外側의 骨空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膺中의 뼈 사이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鳩尾의 外側, 乳房의 3寸 아래, 胃脘의 옆에 각각 5개 穴이 있고, 배꼽으로부터 3寸 거리에 각각 3개 穴이 있고, 배꼽의 2寸 아래에 좌우로 각각 3개 穴이 있고, 氣街穴은 動脈으로서 각각 1개 있고, 伏菟 위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三里에서부터 가운데 발가락까지 각각 8개 俞穴이 있으며, 나누어 穴자리로 行합니다.

4. 제4장 手太陽脈의 穴

【原文】

手太陽脈氣所發者는 三十六穴이니 目內眥가 各一이오 目外가 各一이오 臑臂下가 各一이오 耳郭2)上이 各一이오 耳中이 各一이오 巨骨穴이 各一이오 曲掖上骨穴이 各一이오 柱骨上陷者3)가 各一이오 上天窓四寸이 各一이오 肩解가 各一이오 肩解下三寸이 各一이오 肘以下로 至手小指本히 各六俞라

【校勘】

- (1) 目外各一: 《明抄本》에는 '目外眥各一'로 되어 있다.
- (2) 耳郭: 《甲乙》에는 '耳廓'으로 되어 있다.
- (3) 柱骨上陷者: 《太素》에는 '柱骨出陷者'로 되어 있다.

【較註】

(18) 目內眥各一 目外各一 臑臂下各一 耳郭上各一 耳中各一 巨骨穴各一 曲掖上骨穴各一 柱骨上陷者各一 上天窓四寸各一 肩解各一 肩解下三寸各一 肘以下至手小指本各六俞

王·景岳·高 등은 “足太陽經의 睛明穴이니 手太陽과 交會하는 穴이다. (目外各一)足少陽經의 瞳子謬穴이니 手太陽과 交會하는 穴이다. (臑臂下各一)臑는 頰(광대뼈)라고 하여야 하니, 額膠穴을 말한다. (耳郭上各一)手少陽經의 角孫穴이니 手太陽과 交會하는 穴이다. (耳中各一)聽宮穴이다. (巨骨穴各一)手陽明經의 巨骨穴이다. (曲掖上骨穴各一)臑俞穴을 말한다. (柱骨上陷者各一)足少陽經의 肩井穴이다. (上天窓四寸各一)天窓 窞陰 4穴을 말하니, 窞陰은 足少陽經穴이다. (肩解各一)秉風穴을 말한다. (肩解下三寸各一)天宗穴을 말한다. (肘以下至手小指本各六俞)脈이 指端에서 起始하므로 '本六俞'라고 하였으니, 小海 陽谷 腕骨 後谿 前谷 少澤을 말하며 좌우 총 12穴이다.”²⁸⁾고 하였다.

【直譯】

手太陽脈氣가 發하는 곳은 모두 36개 穴입니다. 目內眥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눈 外側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광대뼈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귓바퀴 위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귀 가운데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巨骨穴이 각각 1개 있고, 曲掖 위의 뼈 틈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柱骨 위의 우묵한 곳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天窓穴의 4寸 위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肩解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肩解의 3寸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팔꿈치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6개 俞穴이 있습니다.

5. 제5장 手陽明脈의 穴

【原文】

手陽明脈氣所發者는 二十二穴이니 鼻空外廉項上이 各二오 大迎骨空이 各一이오 柱骨之會가 各一이오 髑骨之會가 各一이오 肘以下로 至手大指次指本히 各六俞라

【較註】

(19) 鼻空外廉項上 各二

王·馬·吳·景岳·張 등은 “迎香·扶突穴을 이르니, 좌우에 모두 4개 穴이 있다.”²⁹⁾고 하였다.

(20) 大迎骨空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大迎 2개 穴로서 足陽明經이며 거듭 나왔다.”³⁰⁾고 하였다.

(21) 柱骨之會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天鼎 2개 穴이다.”³¹⁾고 하였다.

(22) 髑骨之會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肩髃 2개 穴이다.”³²⁾고 하였다.

은 穴名也라 在肩端上行兩叉骨間陷者中이니 手陽明經脈二經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一寸半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曲掖上骨穴各一)謂臑俞二穴也라 在肩端後 大骨下胛上廉陷者中이니 手太陽經維絡脈三經之會라 舉臂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柱骨上陷者各一)謂肩井二穴也라 在肩下陷解中에 缺盆上 大骨前이니 手足少陽維絡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上天窓四寸各一)謂天窓 窞陰四穴也니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肩解各一)謂秉風二穴也라 在肩小髑骨後에 舉臂有空이니 手太陽陽明手足少陽四脈之會라 舉臂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肩解下三寸各一)謂天宗二穴也라 在秉風後 大骨下陷者中이니 手太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留六呼하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肘以下至手小指本各六俞)六俞는 謂小海 陽谷 腕骨 後谿 前谷 少澤 六穴也니 左右言之 則十二俞也라 其所在刺灸分壯은 氣穴同法이라 ●景岳: 足太陽陽明二穴也니 爲手太陽之會라 (目外各一)足少陽瞳子謬二穴也니 手太陽之會라 (臑臂下各一)臑는 當作頰니 額膠二穴也라 (耳郭上各一)手少陽角孫二穴也니 手太陽之會라 (耳中各一)聽宮二穴也라 (巨骨穴各一)手陽明經二穴也라 (曲掖上骨穴各一)臑俞二穴也라 (柱骨上陷者各一)足少陽肩井二穴也라 (上天窓四寸各一)謂天窓 窞陰四穴이니 窞陰은 足少陽穴也라 (肩解各一)秉風二穴也라 (肩解下三寸各一)天宗二穴也라 (肘以下至手小指本各六俞)脈起於指端 故로 日本六俞니 謂小海 陽谷 腕骨 後谿 前谷 少澤이니 左右共十二俞也라 ○高: (肩解各一)肩外解分之處니 兩秉風穴이라

- 29) ○王·馬·吳·張: 謂迎香扶突各二穴也라 迎香은 在鼻下孔傍하고 手足陽明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라 扶突은 在曲頰下同身寸之一寸入迎後하고 手陽明脈氣所發이라 仰而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四分이오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謂迎香·扶突이니 左右共四穴也라
- 30) ○王·馬·吳·張: 大迎은 穴名也라 在曲頰前同身寸之一寸三分骨陷者中動脈하고 足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七呼오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大迎二穴이니 足陽明經也니 重出이라
- 31) ○王·馬·吳·張: 謂天鼎二穴也라 在頸缺盆上直扶突氣舍後同身寸之半寸하고 手陽明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이오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天鼎二穴也라

分之所在穴空이니 之는 走也라 ○張: 八俞者는 謂三里 巨虛上廉 巨虛下廉 解谿 衝陽 陷谷 內庭 崑崙八穴이니 分之所在는 計十六穴이라 三里는 在膝下三寸 筋外廉大筋內宛宛中이요 巨虛上廉는 在三里下三寸이요 巨虛下廉는 在上廉下三寸이요 解谿는 在衝陽後一寸半 腕上陷中에 足大指次指直上對上陷中이요 衝陽는 在足跗下五寸에 動脈應手요 陷谷는 在足大指次指下本節後陷中이요 內庭은 在足大指次指外間陷中이요 崑崙은 在足大指次指端에 去爪甲如韭葉이라

28) ○王: 謂睛明二穴也라 在目內眥니 手足太陽足陽明陰陽維五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一分하고 留六呼하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目外各一)謂瞳子謬二穴也라 在目外去眥 同身寸之五分이니 手太陽手足少陽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臑臂下各一)謂額膠二穴也라 臑는 頰也니 額는 面額也라 在面頰骨下陷者中이니 手太陽少陽二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라 (耳郭上各一)謂角孫二穴也라 在耳上郭表之中間 上髮際之下에 開口有空이니 手太陽手足少陽三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耳中各一)謂聽宮二穴也니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巨骨穴各一)巨骨

(23) 肘以下至手大指次指本 各六俞

王·馬·吳·景岳·張 등은 “手三里·陽谿·合谷·三間·二間·商陽穴을 이르니, 좌우에 모두 12개 穴이 있다.”³²⁾고 하였다.

【直譯】

手陽明脈氣가 發하는 곳은 22개 穴입니다. 鼻空 外側 모서리와 項 위에 각각 2개 穴이 있고, 大迎穴은 뼈 틈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柱骨之會’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髑骨之會’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팔꿈치에서부터 拇指까지 6개 俞穴이 있습니다.

6. 제6장 手少陽脈의 穴

【原文】

手少陽脈氣所發者是 三十二穴이니 臑骨下가 各一이오 肩後가 各一이오 角上이 各一이오 下完骨後가 各一이오 項中足太陽之前이 各一이오 俠扶突이 各一³¹⁾이오 肩貞이 各一이오 肩貞下三寸分間이 各一이오 肘以下로 至手小指次指本히 各六俞라

【校勘】

(1) 俠扶突各一: 《太素》에는 ‘扶突各一’로 되어 있다.

【較註】

(24) 臑骨下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手太陽經 顛膠 2개 穴로서 手少陽經의 交會穴이며 거들 나왔다.”³⁴⁾고 하였다.

(25) 肩後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絲竹空 2개 穴이다.”³⁵⁾고 하였다.

(26) 角上 各一

王·馬 등은 “懸釐穴이다. 이 부분은 足少陽脈에서와 같으니, 두 經脈이 交會하기 때문이다.”³⁶⁾고 하였고, 吳·景岳 등은 “足少陽經의 頷厭穴이다. 手少陽과 交會하는 穴이니, 거들 나왔다.”³⁷⁾고 하였고, 高는 “頭角의 위는 天衝穴이다. 足少陽脈氣에서는 ‘兩角上各二’라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各一’이라고 하였다.”³⁸⁾고 하였다.

- 考察: ‘角上’에 대하여 王 등은 ‘懸釐穴’이라고 하였고, 吳 등은 ‘頷厭穴’이라고 하였고, 高는 ‘天衝穴’이라고 하였는데 懸釐穴과 頷厭穴은 足少陽膽經으로서 三焦經과 會合하므로 합당하나 天衝穴은 足少陽膽經으로서 膀胱經과 會合하므로 따르기 어렵다.

(27) 下完骨後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天關 2개 穴이다.”³⁹⁾고 하였다.

(28) 項中足太陽之前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足少陽經 風池 2개 穴로서 거들 나왔다.”⁴⁰⁾고 하였고, 高는 “足太陽脈은 목으로 내려와 등쪽으로 行한다. 여기에서는 足太陽脈이 목을 지나는 부위의 앞쪽이라고 하였으니 곧 大迎穴 아래 氣舍穴이다.”⁴¹⁾고 하였다.

- 考察: ‘項中足太陽之前’을 王 등은 ‘風池穴’로 보았고, 高는 ‘氣舍穴’로 보았다. 風池穴은 足少陽膽經의 穴로서 三焦經과 會合하니 王 등의 주장을 따른다.

(29) 俠扶突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手太陽經 天窓 2개 穴로서 거들 나왔다.”⁴²⁾고 하였다.

(30) 肩貞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肩貞은 穴名이다. 肩曲胛아래 兩骨解間에 肩髑뒤 움푹 들어간 곳에 있으니, 手太陽脈의 氣運이 發하는 곳이다. 針은 8分을 刺入할 수 있으며 만약 鬚을 뜯다면 3壯을 딸 수 있다.”⁴³⁾고 하였다.

(31) 肩貞下三寸分間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肩膠·臑會·消澤穴을 이르니 좌우에 모두 6개 穴이 있다.”⁴⁴⁾고 하였다.

(32) 肘以下至手小指次指本 各六俞

王·馬·吳·景岳·張 등은 “天井·支溝·陽池·中渚·液門·關衝穴을 이르니, 좌우에 모두 12개 穴이 있다.”⁴⁵⁾고 하였다.

【直譯】

手少陽脈氣가 發하는 곳은 32개 穴입니다. 광대뼈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눈썹 뒤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角 위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完骨의 아래 뒤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項 가운데에 足太陽經의 앞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扶突穴 옆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肩貞 각각 1개 穴이 있고, 肩貞의 3寸 分肉間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팔꿈치에서부터 藥指까지 6개 俞穴이 있습니다.

7. 제7장 督脈 任脈 衝脈의 穴

【原文】

督脈氣所發者是 二十八穴⁴¹⁾이니 項中央이 二⁴²⁾오 髮際後中이

32) ○王·馬·吳·張: 謂肩髑二穴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景岳: 肩髑二穴也라
33) ○王·馬·吳·張: 謂三里 陽谿 合谷 三間 二間 商陽 六穴也라 左右言之 則十二俞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景岳: 謂三里 陽谿 合谷 三間 二間 商陽 左右共十二穴이라
34) ○王·馬·吳·張: 謂顛膠二穴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手太陽脈同法이라 此는 穴中手少陽太陽脈氣俱會於中하니 等無優劣이라 故로 重說於此 하니 下有者同이라 ●景岳: 手太陽顛膠二穴也라 手少陽之會니 重出이라
35) ○王·馬·吳·張: 謂絲竹空二穴也니 在肩後陷者中하고 手少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六呼호대 不可灸라 灸之不幸은 使人目小及盲이라 ●景岳: 絲竹空二穴也라
36) ●王·馬: 謂懸釐二穴也라 此與足少陽脈中同하니 以是二脈之會也라
37) ●吳·景岳: 足少陽頷厭二穴也라 手少陽之會니 重出이라
38) ●高: 頭角之上은 兩天衝穴也라 足少陽脈氣엔 云兩角上各二라하고 此則云各一이라
39) ○王·馬·吳·張: 謂天關二穴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景岳: 天關二穴也라

40) ○王·馬·吳·張: 謂風池二穴也라 在耳後陷者中하니 按之引於耳中하고 手足少陽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足少陽風池二穴也니 重出이라
41) ●高: 足太陽之脈은 下項行身之背라 今在足太陽項中之前이라하니 乃人迎之下에 氣舍二穴이라
42) ○王·馬·吳·張: 謂天窓二穴也라 在曲頰下 扶突後 動脈應手陷者中 하니 手太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手太陽天窓二穴也니 重出이라
43) ●王·馬·吳·景岳·張: 肩貞은 穴名也라 在肩曲胛아래 兩骨解間 肩髑後陷者中하니 手太陽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44) ○王·馬·吳·張: 謂肩膠 臑會 消澤 各二穴也라 其穴各在肉分間也라 肩膠는 在肩端髑上斜니 舉臂取之라 手少陽脈氣所發이니 刺可入同身寸之七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臑會는 在臂前廉去肩端 同身寸之三寸하니 手陽明少陽二絡氣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消澤은 在肩下臂外關掖斜肘分下行間하니 手少陽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五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謂肩膠 臑會 消澤이니 左右各六穴也라
45) ○王·馬·吳·張: 謂天井 支溝 陽池 中渚 液門 關衝 六穴也라 左右言之 則十二俞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氣穴同法이라 ●景岳: 謂天井 支溝 陽池 中渚 液門 關衝이니 左右共十二穴也라

八이오 面中이 三³⁾이오 大椎以下로 至尻尾及傍이 十五穴이라 至 胛下凡二十一節이니 脊椎法也라

任脈之氣⁴⁾所發者는 二十八穴⁵⁾이니 喉中央이 二오 膺中骨陷 中이 各一⁶⁾이라 鳩尾下三寸 胃脘五寸 胃脘以下至橫骨六寸半⁷⁾이 腹脈法也라 下陰別이 一이오 目下가 各一이오 下脗이 一이오 斷交가 一이라

衝脈氣所發者는 二十二穴이니 俠鳩尾外各半寸至齊寸이 一이오 俠齊下傍各五分至橫骨寸이 一이니 腹脈法也라

足少陰舌下와 厥陰毛中臑脈이 各一이오 手少陰이 各一이오 陰陽踰가 各一이오 手足諸魚際脈氣所發者는 凡三百六十五穴也라

【校勘】

- (1) 二十八穴: 《太素》에는 '二十六穴'로 되어 있다.
- (2) 項中央二: 《太素》에는 '項中央三'으로 되어 있다.
- (3) 面中三: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 (4) 任脈之氣: 《圖經·陰交》에는 '任脈氣'라고 인용하였다.
- (5) 二十八穴: 《太素》에는 '十八穴'로 되어 있다.
- (6) 膺中骨陷中各一: 《太素》에는 이 문장이 없다.
- (7) 六寸半一: 《太素》에는 '八寸一'로 되어 있다.

【較註】

(33) 項中央 二

王·馬·吳·景岳·張 등은 "風府·瘡門 2개 穴이다."⁴⁶⁾고 하였다.

(34) 髮際後中 八

王·馬·吳·景岳·張 등은 "前髮際에서 뒤로 가운데줄에 모두 8개 穴이 있으니, 神庭·上星·額會·前頂·百會·後頂·強間·腦戶穴을 이르며, 안에 포함되어 있는 額會 등의 5개 穴은 앞의 足太陽經에서 거들 보인다."⁴⁷⁾고 하였다.

(35) 面中 三

王·馬·吳·景岳·張 등은 "素膠·水溝·兌端 3개 穴이다."⁴⁸⁾고 하였다.

(36) 大椎以下 至尻尾及傍 十五穴

- 46) ○王·馬·吳·張: 是謂風府瘡門二穴也니 悉在項中이라 餘一穴은 今亡이라 風府는 在項上入髮際 同身寸之一寸 大筋內宛宛中하니 督脈陽維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야 留三呼하고 不可灸라 灸之不幸은 令人瘖이라 瘡門은 在項髮際宛宛中 去風府同身寸之一寸하니 督脈陽維二經之會라 仰頭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禁不可灸니 灸之令人瘖이라 ●景岳: 風府 瘡門二穴也라
- 47) ○王·馬·吳·張: 謂神庭 上星 額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 腦戶 八穴也니 其正髮際之中也라 神庭은 在髮際直鼻하니 督脈足太陽陽明脈三經之會라 禁不可刺니 若刺之則 令人瘖矣 目失睛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上星은 在額上 直鼻中央 入髮際 同身寸之一寸陷者中容豆하고 額會는 在上星後同身寸之一寸陷者中하고 前頂은 在額會後同身寸之一寸五分陷者中하고 百會는 在前頂後同身寸之一寸五分 頂中央 旋手中陷容指하니 督脈足太陽之會라 後頂은 在百會後同身寸之一寸五分하고 強間은 在後頂後同身寸之一寸五分하고 腦戶는 在強間後同身寸之一寸五分하니 督脈足太陽之會니 不可灸라 此八者는 此督脈氣所發也라 上星百會強間腦戶는 各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上星留六呼 腦戶留三呼라 餘穴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景岳: 前髮際以至於後에 中行凡八穴이니 謂神庭 上星 額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 腦戶也라 內額會等五穴은 直見前足太陽下라
- 48) ○王·馬·吳·張: 謂素膠 水溝 斷交 三穴也라 素膠는 在鼻柱上端하니 督脈氣所發이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라 水溝는 在鼻柱下 人中이라 直中取之니 督脈手陽明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二分하고 留六呼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斷交는 在鼻內向上折縫하니 督脈任脈二經之會라 可逆刺之하야 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此三者는 正居面左右之中也라 ●景岳: 素膠 水溝 兌端三穴也라

王·馬·吳·景岳·張 등은 "大椎·陶道·身柱·神道·靈臺·至陽·筋縮·中樞·脊中·懸樞·命門·陽關·腰俞·長強·會陽穴을 이른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會陽 2개 穴은 足太陽經에 屬하며 尻尾 양옆에 있으므로 '及傍'이라고 하였다. 모두 16개 穴이다. 本經과 會陽穴을 連結하면 29개 穴이 된다."⁴⁹⁾고 하였다.

(37) 至胛下凡二十一節 脊椎法也

王·馬·吳·景岳·張 등은 "이것은 項骨을 제외하고 말한 것이다. 만약 項骨의 3개 關節까지 이으면 모두 24개 關節이다."⁵⁰⁾고 하였다.

(38) 喉中央 二

王·馬·吳·景岳·張 등은 "廉泉·天突穴이다."⁵¹⁾고 하였다.

(39) 膺中骨陷中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璇璣·華蓋·紫宮·玉堂·膻中·中庭穴을 이르니, 모두 6개 穴이다."⁵²⁾고 하였다.

(40) 鳩尾下三寸 胃脘五寸 胃脘以下至橫骨六寸半一 腹脈法也

王·馬·吳·景岳·張 등은 "鳩尾는 心臟 앞에 있는 蔽骨이다. 胃脘은 上脘을 말한다. 蔽骨에서부터 아래로 上脘까지 3寸이므로 '鳩尾下三寸胃脘'이라고 하였다. 배꼽에서부터 위로 上脘까지 5寸이므로 또한 '五寸胃脘'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옛 經書의 顛倒文法이다. 또 배꼽에서부터 아래로 橫骨까지의 길이가 6寸 半인데, 「骨度篇」에서 胛에서 아래로 天樞穴까지 길이가 8寸이며 天樞穴에서 아래로 橫骨까지 길이가 6寸 半이라고 하였으니 이 數와 정확히 符合한다. '一'은 1寸마다 1개 穴이 있음을 이른다. 이 위아래는 모두 14寸 半이므로 또한 14개 穴이 있으니, 곧 鳩尾·巨關·上腕·中腕·建里·下腕·水分·齊中·陰交·氣海·丹田·關元·中樞·曲骨穴이다. 이것은 腹脈의 法을 이른다."⁵³⁾고 하였다.

- 49) ○王·馬·吳·張: 脊椎之間에 有大椎 陶道 身柱 神道 靈臺 至陽 筋縮 中樞 脊中 懸樞 命門 陽關 腰俞 長強 會陽하니 十五俞也라 大椎는 在第一椎上陷者中하니 三陽督脈之會라 陶道는 在項大椎節下間하니 督脈足太陽之會오 從而取之라 身柱는 在第三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神道는 在第五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靈臺는 在第六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至陽은 在第七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筋縮은 在第九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中樞는 在第十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脊中은 在第十一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오 禁不可灸니 令人瘖라 懸樞는 在第十三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命門은 在第十四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陽關은 在第十六椎節下間하고 從而取之라 腰俞는 在第二十一椎節下間이라 長強은 在脊骶端하니 督脈別絡과 少陰二脈所結이라 會陽穴은 在陰尾骨兩傍이라 凡此十五者는 並督脈氣所發이라 腰俞 長強은 各刺可入同身寸之二分이라 懸樞는 刺可入同身寸之三分이라 會陽은 刺可入同身寸之八分이라 餘並刺可入同身寸之五分이라 陶道 神道는 各留五呼하고 陶道 身柱 神道 筋縮 可灸五壯이라 大椎는 可九壯하고 餘並可三壯이라 ●景岳: 謂大椎 陶道 身柱 神道 靈臺 至陽 筋縮 中樞 脊中 懸樞 命門 陽關 腰俞 長強 會陽也라 內會陽二穴은 屬足太陽經하고 在尻尾兩傍故로 曰及傍이라 共十六穴이라 本經連會陽則二十九穴也라
- 50) ○王·馬·吳·張: 通項骨三節이니 卽二十四節이라 ●景岳: 此除項骨而言이라 若連項骨三節하면 則共二十四節이라
- 51) ○王·馬·吳·張: 謂廉泉天突二穴也라 廉泉은 在頰下結喉上舌本下하니 陰維任脈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留三呼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天突은 在頸結喉下同身寸之四寸中央宛宛中하니 陰維任脈之會라 低減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一寸하고 留七呼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廉泉 天突也라
- 52) ○王·馬·吳·張: 謂璇璣 華蓋 紫宮 玉堂 膻中 中庭 六穴也라 璇璣는 在天突下同身寸之一寸하고 華蓋는 在璇璣下同身寸之一寸하고 紫宮 玉堂 膻中 中庭은 各相去同身寸之一寸六分陷者中이니 並任脈氣所發이라 仰而取之하야 各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景岳: 謂璇璣 華蓋 紫宮 玉堂 膻中 中庭 共六穴也라

(41) 下陰別 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曲骨穴의 아래에서부터 絡脈이 갈라져 두 陰器의 사이에서 衝脈·督脈과 交會한다. 그러므로 ‘陰別’이라고 하였다. ‘一’은 陰陰穴이다.”⁵⁴⁾고 하였다.

(42) 目下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足陽明經의 承泣 2개 穴로서, 任脈의 交會穴이다.”⁵⁵⁾고 하였다.

(43) 下脘 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承漿穴이다.”⁵⁶⁾고 하였다.

(44) 斷交 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斷交는 穴名이니, 刺鍼하는 깊이와 뜸뜨는 壯수는 脈과 더불어 한가지다.”⁵⁷⁾고 하였다.

(45) 俠鳩尾外各半寸至齊 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齊는 臍와 같다. ‘寸’은 每寸마다 1개 穴이 있음을 이르니, 곧 幽門·通谷·陰都·石關·商曲·肅俞穴로서 좌우에 모두 12개 穴이 있다.”⁵⁸⁾고 하였다.

(46) 俠齊下傍各五分至橫骨寸 一 腹脈法也

王·馬·吳·景岳·張 등은 “中注·髓府·胞門·陰關·橫骨穴을 이르니, 좌우에 모두 10개 穴이 있다. 上文은 모두 腹部의

돌출줄(足少陰經)의 脈法이다.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 足少陰經의 穴이니, 대개 衝脈이 足少陰經과 더불어 上行한다.”⁵⁹⁾고 하였다.

(47) 足少陰舌下 厥陰毛中急脈 各一

王은 “足少陰舌下二穴은 人迎앞 함몰된 부위의 動脈 앞이니 日月本穴이고, 急脈은 陰毛 가운데 陰器위 兩傍이니 서로 거리가 2.5寸이다.”⁶⁰⁾고 하였고, 馬·景岳 등은 “少陰舌下는 廉泉穴이라.”⁶¹⁾고 하였다.

(48) 手少陰 各一

王·馬·吳·景岳·張 등은 “陰郄 2개 穴이다.”⁶²⁾고 하였고, 高는 “手少陰脈은 心脈이니 心脈은 心中에서 起始하여 手小指를 끼고 돌아 손끝인 少衝穴에서 氣가 發하니 少衝 2穴이다.”⁶³⁾고 하였다.

- 考察 : ‘手少陰’에 대하여 王 등은 ‘陰郄穴’이라고 하였고, 高는 ‘少衝穴’이라고 하였다. 陰郄穴은 手少陰脈의 隙穴이고, 少衝은 井穴이다. 隙穴은 間隙의 뜻으로 經氣聚集의 부위이고, 井穴은 經氣가 나오는 부위이므로 두 주장 모두 합당하다.

(49) 陰陽驕 各一

王·吳·景岳·張 등은 “陰驕의 郄穴은 足少陰經의 交信穴이며 陽驕의 郄穴은 足太陽經의 附陽穴이다.”⁶⁴⁾고 하였고, 高는 “陰驕脈은 足內踝의 照海穴에서 起始하고, 陽驕脈은 足外踝 申脈穴에서 起始하” 照海 申脈 4穴이다.”⁶⁵⁾고 하였다.

- 考察 : ‘陰陽驕’에 대하여 王 등은 ‘交信, 附陽穴’이라고 하였고, 高는 ‘照海, 申脈穴’이라고 하였다. 交信·附陽穴은 陰·陽驕脈의 郄穴이고, 照海·申脈은 陰·陽驕脈의 氣가 會通하는 부위

53) ○王·馬·吳·張: 鳩尾는 心前穴名也라 其正當心蔽骨之端하야 肱其骨垂下가 如鳩尾形故로 以爲名也라 鳩尾下에 有鳩尾 巨關 上腕 中腕 建里 下腕 水分 齊中 陰交 臍映 丹田 關元 中極 曲骨 十四俞也라 鳩尾는 在臍前蔽骨下 同身寸之五分하니 任脈之別이라 不可灸오 刺人無蔽骨者는 從彼骨際下行 同身寸之一寸이 爲鳩尾處也라 下次巨關 上腕 中腕 建里 下腕 水分하니 逐相去同身寸之一寸이라 上腕은 則足陽明手太陽之會오 中腕은 則手太陽少陽足陽明三脈所生也라 齊中은 禁不可刺니 若刺之면 使人齊中惡瘍潰出者 死不治라 陰交는 在齊下同身寸之一寸하니 任脈陰衝之會라 臍映은 在齊下同身寸之一寸이라 丹田은 三焦募也니 在齊下同身寸之二寸이라 關元은 小腸募也니 在齊下同身寸之三寸이오 足三陰任脈之會也라 中極은 在關元下一寸하니 足三陰之會也라 曲骨은 在橫骨上中極下 同身寸之一寸하니 足厥陰之會라 凡此十四者는 並任脈氣所發이라 建里丹田은 並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고 留七呼라 上腕陰交는 並刺可入同身寸之八分하고 下腕水分은 並刺可入同身寸之一寸하고 中腕臍映은 並刺可入同身寸之一寸二分하고 曲骨은 刺可入同身寸之一寸半하야 留七呼라 餘並刺可入同身寸之一寸二分하고 若灸者는 關元中腕各可灸七壯이오 齊中中極曲骨各三壯이오 餘並可五壯이라 自鳩尾下至陰關은 並任脈主之니 腹脈法也라 ●景岳: 鳩尾는 心前蔽骨也라 胃院은 膻上腕也라 自蔽骨下至上腕三寸故로 曰鳩尾下三寸胃院이라 自臍以下至橫骨長六寸半이라 骨度篇에 曰 肘以下至天樞長八寸이오 天樞以下至橫骨長六寸半이라하니 正合此數라 一은 謂一寸當有一穴이라 此上下共十四寸半故로 亦有十四穴이니 卽鳩尾 巨關 上腕 中腕 建里 下腕 水分 齊中 陰交 氣海 丹田 關元 中極 曲骨是也라 此謂腹脈之法이라

54) ○王·馬·吳·張: 謂會陰一穴也라 自由骨下至陰陽之下 兩陰之間이 則此穴也라 是任脈別絡俠督脈者오 衝脈之會라 故로 曰下陰別一也라 刺可入同身寸之二寸하야 留七呼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自由骨之下로 別絡兩陰之間하야 爲衝脈之會故로 曰陰別이라 一은 爲會陰穴也라

55) ○王·馬·吳·張: 謂承泣二穴也라 在目下同身寸之七分 上直瞳子하니 陽明任脈足陽明三經之會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不可灸라 ●景岳: 足陽明承泣二穴이니 任脈之會라

56) ○王·馬·吳·張: 謂承漿穴也이라 在頤前下脘之下하니 足陽明任脈之會라 開口取之하야 刺可入同身寸之二分하고 留五呼라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景岳: 承漿穴也라

57) ●王·馬·吳·景岳·張: 斷交는 穴名也라 所在刺灸分壯은 與脈同法이라

58) ○王·馬·吳·張: 謂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肅俞穴이니 左右則十二穴也라 幽門은 俠巨關兩傍 相去各同身寸之半寸陷者中하니 下五穴은 各相去同身寸之一寸하니 並衝脈足少陰二經之會라 各刺可入同身寸之一寸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景岳: 齊는 臍同이라 寸一은 謂每寸一穴이니 卽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肅俞니 左右共十二穴也라

59) ○王·馬·吳·張: 謂中注 髓府 胞門 陰關 下極 五穴이니 左右則十穴也라 中注는 在肅俞下同身寸之五分 上直幽門이라 下四穴은 各相去同身寸之一寸하니 並衝脈足少陰二經之會라 各刺可入同身寸之一寸하고 若灸者는 可灸五壯이라 ●景岳: 謂中注 髓府 胞門 陰關 橫骨이니 左右共十穴이라 上俱腹二行脈法也라 按건대 此皆足少陰穴이니 蓋衝脈是足少陰之經而上行也라

60) ●王: 足少陰舌下二穴은 在人迎前陷中動脈前하니 是日月本左右二也라 足少陰脈氣所發이니 刺可入同身寸之四分이라 急脈은 在陰宅中陰上兩傍 相去同身寸之二寸半이라 按之隱指堅이나 然이나 甚按則稍引上下也라 其左者中寒 則上引少腹하고 下引陰丸하고 善爲痛爲少腹急이라 中寒에 此兩脈은 指厥陰之大絡으로 通行其中이라 故로 曰厥陰急脈이라 하니 卽芻之系也라 可灸而不可刺라 病疝과 少腹痛엔 卽可灸라

61) ●馬·景岳: 刺經論에 曰舌下兩脈者 廉泉也라하니 指此而言이라 故로 廉泉雖任脈之穴이니 而實爲腎經脈氣所發이니 重出이라 急脈은 在陰毛之中하니 凡疝氣急痛者와 上引小腹과 下引陰丸은 卽急脈之驗이라 厥陰脈氣所發也라 今甲乙鍼灸等書에 俱失此穴이라

62) ○王·馬·吳·景岳·張: 謂手少陰郄穴也라 在腕後同身寸之半寸하니 手少陰郄也라 刺可入同身寸之三分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左右二穴也라 ●景岳: 陰郄二穴也라

63) ●高: 手少陰은 心脈也니 心脈起于心中하야 循手小指少衝出其端이라 左右少衝各一이니 凡二穴이라

64) ○王·吳·張: 陰驕一은 謂交信穴也라 交信은 在足內踝上 同身寸之二寸에 少陰前太陰後 筋骨間陰驕之郄이라 刺可入同身寸之四分하야 留五呼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陽驕一은 謂附陽穴也라 附陽은 在足外踝上 同身寸之三寸에 太陽前少陽後 筋骨間하니 謹取之라 陽驕之郄은 刺可入同身寸之六分하야 留七呼하고 若灸者는 可灸三壯이라 左右四也라 ●景岳: 陰驕之郄은 足少陰交信也오 陽驕之郄은 足太陽附陽也라

65) ●高: 陰驕起于足內踝之照海하고 陽驕起于足外踝之申脈이라 照海申脈左右各一이니 凡四穴이라

65) ○王·馬·吳·張: 經之所存者多하니 凡一十九穴이오 此所謂氣府也라 然이나 散穴俞諸經脈部分皆有之故로 經或不言하니 而甲乙經經脈流注와 多少不同者는 以此分이라 ●景岳: 手足諸魚際는 言手足魚際非一也라 然則手足掌兩旁肉處가 皆謂之魚니 此學諸魚際爲言者라 蓋四肢는 爲十二經發脈之本故로 言此以明諸經氣府之綱領也라 總計前數면 共三百八十六穴이니 除重複十二穴이면 仍多九穴하니 此則本篇之數라

로서 두 주장 모두 합당하다.

(50) 手足諸魚際脈氣所發者 凡三百六十五穴也

王·馬·吳·景岳·張 등은 “ ‘手足諸魚際’는 手足의 魚際가 하나가 아님을 말한다. 그러한 즉 手足掌 양옆의 豊富한 肌肉을 모두 魚라고 이른다. 여기에서 모든 魚際를 들어서 말한 것은 대개 四肢가 12經이 發하는 脈의 根本이므로, 이것을 말하여 諸經의 氣府의 綱領을 밝힌 것이다. 앞의 數를 모두 계산하면 모두 386개 穴이며 중복된 12개 穴을 제외하면 9개 穴이 많으니 이것이 本篇의 數이다.”⁶⁶⁾고 하였다.

【直譯】

督脈의 氣가 發하는 곳은 28개 穴입니다. 項 가운데에 2개 穴이 있고, 髮際에서 뒤로 가운데줄에 8개 穴이 있고, 面部 가운데에 3개 穴이 있고, 大椎穴에서부터 尻尾 옆까지 15개 穴이 있고, (大椎에서부터) 尾骶까지의 21개 關節은 脊椎의 取穴法입니다. 任脈의 氣가 發하는 곳은 28개 穴입니다. 喉部 가운데에 2개 穴이 있고, 胸骨의 우묵한 곳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鳩尾에서 3寸 아래는 胃脘이며 (배꼽에서부터) 5寸 위는 胃脘이고 (배꼽에서부터) 아래로 橫骨까지는 6寸반인데 1개씩 穴이 있으니, (이것이) 腹脈法(腹部의 取穴法)입니다. 陰部 아래의 갈라지는 곳에 1개 穴이 있고, 눈 아래에 각각 1개 穴이 있고, 입술 아래에 1개 穴이 있고, 斷交 1개 穴이 있습니다. 衝脈의 氣가 發하는 곳은 22개 穴이 있습니다. 鳩尾穴의 半寸 옆에서부터 배꼽까지 每寸마다 1개 穴이 있고, 배꼽 아래의 5分 옆에서부터 橫骨穴까지 每寸마다 1개 穴이 있습니다. (이것이) 腹脈法(腹部의 取穴法)입니다. 舌下에 足少陰脈氣가 發하는 곳이 있습니다. 厥陰經은 毛中の 急脈 각각 1개 穴이 있습니다. 手少陰經에 각각 1개 穴이 있습니다. 陰蹻脈·陽蹻脈에 각각 1개 穴이 있습니다. 手足의 모든 魚際는 脈氣가 發하는 곳입니다. 모두 365개 穴입니다.

참고문헌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3. 王冰; 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台北, 1979.
4. 王冰; 黃帝內經素問, 珍傲宋版印, 中華書局.
5. 吳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山東, 1983.
6.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7.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8. 高世祚;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9.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語解, 大一書局, 台北, 1977.
10. 王琦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1.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2.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13.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4. 林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5. 程士德 主編; 內經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6. 朴晷; 國譯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4.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0.
19. 白貞義·崔一凡;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88.
20.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5.
21.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3.
22. 姚止庵; 素問經註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23.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 廣法社, 서울, 1975.
24.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1990.
25. 金赫濟;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2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27.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28.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29. 蔡仁權·權賢德·邊元九 共譯;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30. 金賢濟·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3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北, 1984.
32. 金元中 編著;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33.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 江西技術出版社, 江西, 1987.
34. 劉世昌·張啓基·許占民·張尊如·吳學章編著; 中醫經典字典, 重慶出版社, 重慶, 1990.
3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3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